

# ‘정율성 생가’ 갈등 지자체 ‘정율성 위해’ 손 잡다

광주 동구·남구·화순군 선양사업 등 공동 추진 합의

‘생가’ 대신 ‘유적지’ 사용…‘정율성 벨트’ 공감

광주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탄력 받을 듯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1914~1976) 선생의 생가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자치단체들이 정율성 선생의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정율성 관련 사업과 광주시가 추진중인 ‘중국

과 친해지기’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광주 동구·남구, 전남 화순군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정율성 선생 항일투쟁 및 예술정신 계승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창현 시장, 노회용 동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구

충곤 화순군수는 1시간가량 간담회를 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남구는)11년간 정율성 선생 사업을 해왔지만, 3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정율성 벨트를 조성하자는 데 공감한다”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회용 동구청장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은 ‘생가’였다. 위대한 인물을 기리고 한중교류의 핵심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생가’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말고, 동구 유적지, 남구 유적지, 화순 유적지 등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광주시가 나서 합의를 이룬 것이 천만다행이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자체 간 뜻을 모으면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내달 16~19일 중국에서 열리는 정율성 음악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단체장들은 소모적인 생가논란을 극복하고 지역인적 자산인 정 선생을 기리는 정신계승과 선양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동구 불로동과 남구 양림동, 화순군 능주면에 있는 정 선생 삶의 흔적을 찾

아 보존하고 그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도 함께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장의 선도적인 노력과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항일투쟁 역사 계승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현안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출생지 관련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행정 경계를 넘어 선생의 뜨거운 항일 투쟁의 역사와 예술의 향기를 공유·계승하고, 기념관 건립 등 현안사업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 선생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운동에 투신했으며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1939년)’ 등을 작곡하면서 혁명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2009년 신중국 창건영웅 100인으로 선정되고 2014년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 시 한중 우호인물로 언급되는 등 근·현대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구와 남구는 정 선생의 출생지를 각각 불로동, 양림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선생의 부인 등이 광주시를 상대로 출생지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속가능 발전 광주비전’ 선언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청사 3층 대회의실에 열린 ‘지속가능 발전 광주비전’ 선언식에서 윤창현 광주시장 등 600명이 ‘100년 광주, 지속발전 광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선언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경제·사회부문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의 동반 성장을 지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시 제공〉

## 국립 야생동물보전연구원 건립 준비 ‘착착’

광주 광산구 용곡동 도로 개설·부지매입 후 내년 하반기 착공

국내 첫 야생동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관심을 끈 국립 야생동물 보전연구원 건립사업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광산구 용곡동 연구원 건립 부지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연구원 건립 현황을 보고받고 연구원 진입도로가 될 국지도 49호선 연결도로 개설 여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년 중 35억원을 들여 길이

300m, 폭 10m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도로 개설과 함께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 부지매입 등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연구원 건물 건립공사에 들어가 2017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부설인 연구원은 국비 198억원을 들여 3만71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7600㎡ 규모로 지어진다.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고 가축, 인간의 피해

도 예방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연구원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조사, 자료 구축, 산업기술 개발, 국내외 공동 연구, 야생동물 보건관리 교육·훈련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AI 등 피해가 확대되자 2013년부터 야생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연구원 설립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유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7일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 대응력 향상뿐 아니라 질병진단 키트 개발 등 관련산업 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천경자 유족 “어머니 유골 묻힌 곳 알고 싶다”

서울서 회견 “8월 6일 돌아가신 것 분명하다”

30일 추모식 “금관문화훈장 추서 안해 섭식”

천경자 화백의 장녀인 이혜선(70) 씨를 제외한 유족이 27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천 화백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관련기사 16면〉  
간담회에는 천 화백의 장남 이남훈(67) 씨, 차녀인 김정희(61) 미국 콩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 사위인 문병강 조치타운대 미술과 교수, 막내인 고(故) 김중우 씨의 아내 서재현 씨가 참석했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 별세 소식을 미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한국의 어느 은행으로부터 어머니 통장 계좌 해지 경위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언니에게서 사망과 관련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천 화백의 사

망과 관련해 “분명히 8월6일 돌아가셨다”며 이것에 대해선 더이상 의혹 또는 미스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어머니는 한국을 사랑했고,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국민을 사랑했으며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유족이 나서서 그간 상황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어머니께서는 다른 문화인 가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추잡하다고 하였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느 보도에 다른 자식들은

그림을 팔기를 원한다는 식의 오보가 나갔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으며 소장하고 있는 천 화백의 작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혜선 씨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는 질문에 “어머니 유골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남훈 씨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라는 질문에 “천 화백의 작품을 ‘귀하게만 여겼지 누가 가져가야 한다’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유족이 추위가 돼 추모식을 열기로 했다고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천 화백의 작품활동이 미미하고 사망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비탄을 느끼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100원 택시’ 농어촌 삶 바꿨다

병원·시장 많이 이용…“외출 늘고 친구 많아져”



민선 6기 전남도의 대표 시책인 ‘100원 택시’가 농산어촌 고령자들의 외출 횟수를 늘리고,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100원 택시’ 전체 이용자 중 약 10%인 981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 참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51.9%)·매우 만족(29.5%)하고 있었다. 설문 참가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32.0%, 50대가 16.7%를 차지했다. 남성(39.7%)보다는 여성(60.3%)이 많았

며, 이 가운데 현재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62.0%,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25.4%였다.

이용 목적은 병원(44.0%)과 시장(35.1%)이 전체의 5분의 4를 차지했으며, 관공서와 터미널 방문이 각각 8.7%와 6.7%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57.1%가 매달 4차례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10차례 이상 택시에 오르는 응답자도 8.9%나 됐다. ‘100원 택시’가 농산어촌 고령자들의 확실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100원 택시’로 인해 응답자의 생활 변화로는 ▲외출 횟수가 늘었다(56.9%) ▲소재지 문화활동에 참여했다(27.0%) ▲친구가 많아졌다(1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원 택시’는 18억6300만원 예산을 투입해 14개 시·군 362개 마을에 도입됐으며 지난달 말까지 24만8582명이 이용했다. 전남도는 내년 여수, 담양, 구례, 장성, 신안 등 5개 시·군 120개 마을을 추가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2015년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

### 2015년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 청년창업자를 찾습니다

창제된 무등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 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오니,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2015.10.15(목)~10.29(목) 18:00까지

**□ 지원내용** 창업교육, 재정정보 운영, 입차료, 인터넷에 정부지원금 : 총 소요비용의 60% 이하, 컨설팅, 홍보, 마케팅지원, 멘토링 등

**□ 신청자격**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로서 문화예술·공예 등 분야 또는 등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민20세 ~ 39세 이하인 재시업공고일 기준)

**□ 상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군부로 27(주원동)

**□ 지원규모** 청년 10팀 (남구 무등시장 내 10개 점포) / 아이템 : 문화예술·공예 분야, 기타 등

**□ 임대사향** 문화예술·공예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015. 10. 30(일)~2015. 11. 3(일)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 2015. 11. 5(일)~2015. 11. 6(일) 개별통지

**□ 제출서류** 신청서(4부), 창업계획서(4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 접수방법** 무등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단/사업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메일접수 : cableyun@hanmail.net (마감일 29일 도착분에 한함) 지원양식 : http://www.mys.co.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처** 무등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단 / 전 화 : 062-670-2836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국기관 3층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금(대출)을 규약 위반, 단,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재정조정), 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파산)을 받거나 파산면역 신고자는 창업가능 대상, 자정제 등 특수채무이 경우에는 판관(파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제과 증인 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면역)로 제과 증인 지, 신청일 현재 사업(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아닌(국세, 국세, 민선, 임종전환 제정자는 반드시 신규 사업(면역)을 할 때만 가능)

**주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 광주남구청  
**주관** 무등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단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